

효성에바라, 신재생 담수플랜트 착공

해수 · 태양열 이용한 하이브리드 방식 ... 역삼투 시장 선점 가능성도

담수화 시설 개발기업 효성에바라가 신개념 담수플랜트 기술을 개발해 플랜트 건설에 나섰다.

효성에바라는 한국남동발전과 공동으로 인천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신재생 담수플랜트 착공식을 가졌다고 9월22일 밝혔다.

신재생 담수플랜트는 역삼투식 해수 담수플랜트와, 태양열을 이용한 증발식 해수 담수플랜트를 최적으로 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루 20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신 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태양열을 담수화에 활용해 수자원 확보와 함께 환경 친화적인 생산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효성에바라는 2010년 6월까지 플랜트를 시공해 5년간 운영한 후 한국남동발전에 설비를 이관할 예정이다.

효성에바라 관계자는 “고효율 담수화플랜트 기술을 수출하면 12조원에 달하는 역삼투 해수담수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수플랜트는 바닷물을 담수로 전환함으로써 식수, 산업·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시설로 세계적인 사막화와 오염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의 대안으로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2>